

춡고 답답함이 엄습할 때에는 옛 선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자신을 다독여 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삶이 힘들 때는 다산 정약용에게 배운다

1.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 마라.

다산은 경상도 포항 장기와 전라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삶과 죽음이 오가는 유배지에서 살았다.

2. 공부가 어렵다고 하지 마라.

한생에 500권의 책을 읽기도 어려운데 다산은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3. 사람을 사귀는데 나이를 묻지 마라.

다산은 20살이나 어린 혜장선사, 초의선사와 학문의 친구가 되었다.

4.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다산은 벼슬길에 있던 때보다도 벼슬에서 멀어 올 때 큰 이룸이 있었다.

인생의 깨달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크게 배운다.

5.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다산은 같은 조정에서 국사를 논하던 사람들에 의해 유배되었다.

6. 전문성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다산은 배우지 않았어도 수원화성을 설계했고,

당대 최고의 기술인 거중기와 농노를 발명했다.

7. 인생에 여유가 없다고 하지 마라.

다산은 사약이 언제 배달될지 모르는 유배지에서 차를 즐겼다.

그래서 호도 다산(茶山)이다.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 쉴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口